

올해 광주시 최고 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

스타정책 경진대회 '베스트10' 결정

연중 시민 평가…투명성·신뢰도 높여

2위 광주형 공공의료·3위 AI중심도시

광주시민들은 2025년 광주를 빛낸 최고의 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를 선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스타정책 경진대회에서 '시즌1'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시즌3'로 두 번째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평가 기관·현장평가를 통해 '올해의 베스트10 정책' 순위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부터 기존의 연말 1회 직원 중심 정책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인공인 시민이 직접 후보 정책을 선정부터 심사까지 참여하는 연중 시민 중심 평가 체계로 전환해 정책의 투명성·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 10개 후보 정책은 4월 온라인(광주ON·행정포털) 설문(6천40명), 5월 광주시민의 날 현장평가(1천409명), 9~10월 지역사회리더 설문조사(4천80명)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정책들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300여명의 시민·전문가 평가단 앞에서 경진대회에 오른 10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에서는 '올해의 베스트10 정책' 1위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뽑혔다.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3년 차를 맞아 기존 생활 돌봄에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 2위 통합건강센터와 광주형 응급의료체계를 만든 '광주형 공공의료', 3위 AX실증밸리 등 'AI중심도시 광주', 4위 '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우치공원 조성', 5위 광천터미널 미래형 도시

공간 조성, 6위 '시원한 도시 조성', 7위 '광주천 환경개선', 8위 '군공항 이전', 9위 '복합쇼핑몰', 10위 '대자보 도시' 순이다.

시민들의 체감도와 실질적 성과가 높은 정책들이 시민평가단의 선택을 받으며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다. 이날은 1년 전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날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광주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오늘의 광주를 만든 힘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 정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상을 시상했다.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나누는 돌봄 정책인 '삼삼오오 이웃돌봄'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관광 상품화 융합으로 광주다움 확산', 광주문화재단의 시민과 골목경제를 잇는 지역 문화 복지 모델 정책인 '광주문화누리카드'가 선정됐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 덕분에 광주는 더 투명하고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는 믿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서구아너스, 어린이 희망선물 기부 광주 서구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원 성취 희망선물 후원금 전달식을 열어 김이강 서구청장과 서구아너스 회원, 아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전

道, 지·산·학·연 협의체 중심 대응
22일 국회서 유퇴토론회 개최 예정

전남도가 정부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발맞춰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호남,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이 중 호남권을 '핵심광물(원료)·양극재'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K-배터리 산업

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료 공급망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광양만권을 '원료소재니켈, 리튬 기초소재전구체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 초안 작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와 TF를 구성·운영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지차체 유관기관·기업 간 공모 대응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TF 중심 공모 대응, 산·학·연 협력 강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확충 포함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운영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 연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특강·전시

전남도는 3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인권 특강, 인권공모전 우수작 전시회 등 '2025 도민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0일 인권특강에는 각종 방송 출연과 강연 활동으로 알려진 역사 전문가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심용환 강사가 '한국 근현대사속의 민주주의 인권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2025 전남도 인권공모전 우수작'과 '세계인권

선언문 테마'를 전시한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섬진강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공모전은 '자별없는 OK 전남, 함께 그리는 사회'를 주제로 실시한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포스터 최우수상 '당신의 편견 AI도 배웁니다'

▲학생부 포스터 최우수상 '조각조각 하나의 우정' ▲동영상 최우수상 '농어촌의 인권, 함께 봄보는 기본의 가치' 등 작품을 전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권특강 참여 신청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정 기자

전남 서부권 소아 야간진료 확대 모색

道,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간담회

전남도는 3일 목포·무안 소재 아동병원장들과 '전남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간담회'를 열어 서부권 소아 야간진료 확대를 모색했다. /사진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남에 4개소가 있지만, 동부권(순천 3개소·광양 1개소)에만 운영되고 있어 서부권 설치를 바라는 도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 응급의료지원단, 목포미즈아이병원·목포한사랑병원·목포아동병원, 무안에 있는 목포소아청소년과의원, 목포시·무안군 보건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부권 아동환자 응급실 이용 실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방안,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재정 기자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전문 이장
- 가족구성 가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